

미래가치를 디자인하는 창의실용교육 중심대학, 가톨릭관동대

70년 전통을 이어가는 명문 대학

1954년 강릉 내곡동에 관동대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고, 1955년 관동대의속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1959년 4년제 승격, 1989년 종합대학 승격, 2023년 지금의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있기까지 68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강원의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2023년에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학생중심대학경쟁을 바탕으로 두고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대학으로 100년의 꿈을 키워간다.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인천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가톨릭관동대학교는 학생중심 발전이라는 강한 의지와 함께 대단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시설개선을 위한 지상 10층 규모

의 복합연구강의동 창조관을 건립함으로써, 연구역량 및 교육콘텐츠 내실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성화전공 최적화 실용시설...신입생 100% 생활관 입사

가톨릭관동대는 기존의 의과대학과 더불어 보건의로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의과대학은 의학과와 간호학과로, 헬스케어융합대학은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보건계열 학과(전공)는 부속병원인 국제성모병원과 성모요양병원, 마리스텔라(실버타운)와 연계해 창의·실용적인 대학교육과 취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체를 통해 자기주도적 생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진 전인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열정적인 민화의 공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어울림의 공간을 조성해 전문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특히, 신입생(강릉시 주소자 포함)은 전원입사가 가능해 편안하고 여유로운 대학생활을 약속한다.

학생중심 경영으로 발전하는 CKU

가톨릭관동대는 '가톨릭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실용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중심으로 한 경영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톨릭관동대가 설정한 6대 학생역량에는 ▲공동체역량, ▲공감적소통역량, ▲자기관리역량, ▲정보활용역량, ▲창의융합역량, ▲문제해결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은 교육·연구·봉사활동·해외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가톨릭관동대는 구체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4대 지원정책을 구분해 각 학교기관은지원주체별로 연구하고 적용해 보다 나은 학습방법을 찾아나간다.

●**학습지원** 1)교수학습개발센터 2)LINC3.0 산학교육지원센터 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CKU사회봉사-인성센터 5)VERUM교양교육연구소 6)휴먼서비스대학 7)박물관 8)장애학생지원센터 9)국가시험지원센터 등이 마련돼 있다.

●**취·창업지원**에는 1)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LINC3.0 산학교육지원센터 3)LINC3.0 스타트 업지원센터 4)창업교육센터 5)휴먼서비스대학 6)예비교원상담실 등이 학생의 취창업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진로지원**에는 1)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입학사정센터 3)현장실습지원센터 4)진로개발지원센터가 학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방법을 고민해준다.

●**심리상담지원**에도 1)학생상담센터 2)교수학습개발센터 3)CKU사회봉사-인성센터가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학생이 직접 설계하는 자신의 미래

수요자 맞춤형 융합교육을 추구하는 가톨릭관동대는 시대적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계열 및 학과의 벽을 허물고 융복합 교육을 실천한다. 희망전공은 물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설계 교육과정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가톨릭관동대가 광범위하게 채택한 제도가 몇 가지 있다.

'**단일전공이수제**'가 기본이 된다. 단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일

반전공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및 하나 이상의 소단위 학위과정(Micro Degree)을 이수하면 된다. '**다전공이수제**'는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트리니티융합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일반전공, 소단위 학위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이수하면 된다. '**지율전공학부 및 자기설계전공**'은 자율전공학부 경우, 입학 후 트리니티융합대학의 전공 중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트리니티융합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조합해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도 있다. **교육수요자 맞춤형 개설**은 다양한 세부 학문분야를 엄선해 개설, 관심있는 분야에 쉽게 접근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소단위 학위과정(Micro Degree; MD)**은 최신 학문 및 사회요구 반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신산업과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이다. 또 하나는 교육수요자 맞춤형 개설로 다양한 세부 학문 분야를 엄선해 개설, 관심있는 분야에 쉽게 접근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대학,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가톨릭관동대는 연간 약120억원(2023년 6월 기준)의 재정지원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지원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가톨릭관동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120억원의 재원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초기-예비 창업패키지주관기관사업,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사업, 첨단산업 아카데미사업, IPP형일학습병행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강원도대학발전육성사업,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K-move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시범대학,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사업,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 대학상생발전 협력사업 등에서 재정이 조달되고 있다.



2024학년도 가톨릭관동대 수시모집 안내

INTERVIEW | 문준섭 입학처장

“5개 대학, 40개 학과(부) · 전공으로 총 1644명 모집”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의 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 변화, 시대를 바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행, 예상치 못한 Covid-19의 상황 등 다양하고 예상되지 않은 변화를 대학에서는 직접 경험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톨릭관동대는 철저한 자기분석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동문,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 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대학에 원하는 '취·창업'에 강한 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에도 우뚝 설 수 있는 강한 글로벌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톨릭관동대는 70년 전통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타 대학교의 차별화된 다양한 특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섯번째,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중심이 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단일전공이수, 다전공이수 뿐만 아니라 자율전공 학부 및 자기설계 전공체제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지역명소에서 어우러지는 현장수업

여섯번째,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세계가 선택한 도시 강릉에 위치한 가톨릭관동대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 캠퍼스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및 다양한 지역명소와 함께하고 있는 지역명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일곱번째, 가톨릭관동대는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비롯해,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23유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 등 20여개의 다양한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약 120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산·학·연 연계프로그램, 취·창업지원, 국내·외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대한민국이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입니다.

여덟번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AI, 바이오융합, 메디컬헬스, 첨단소프트웨어, 디지털혁명, 첨단물류, 빅데이터, 스마트항만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및 교육제공은 물론, AI 기반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가톨릭관동대는 국가 장학금(1.2유형), 트리니티융합대학 장학금(신입생 전원 지급), 강원 인재장학금, 가톨릭계고교출신장

학금 등 재학 중 70여 종류의 다양한 폭넓은 장학혜택기회 제공으로 총 264억원(2020년 기준)의 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가톨릭관동대는 전세계와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구축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을 위해 전세계 다양한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로 통해 재학기간 중 언어연수, 교환학생, 단기연수프로그램, 글로벌 현장실습(Global CooBee Program), K-Move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는 물론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 입시 큰 변화 '트리니티융합대학' - '자율전공학부' 신설

이처럼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장점을 안고 있는 가톨릭관동대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5개 단과대학, 40개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총 1644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 중 수시 모집에 1458명을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186명(나군 44명, 다군 142명)을 선발합니다.

2023학년도 입시 대비 2024학년도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트리니티융합대학'의 신설과 '자율전공학부' 신설입니다. 전공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광역으로 모집했던 전년도와는 달리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공별로 정원을 두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트리니티융합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는 자기설계를 통한 교육과정의 선택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을 한 학생에게도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사운영체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학과 및 트리니티융합대학 내의 일부 전공은 교적이수도 가능합니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톨릭관동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입시문의: 가톨릭관동대 입학처: 033-649-7000

가톨릭관동대학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가톨릭관동대학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2024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원서접수
2023. 9. 11.(월) - 2023. 9. 15.(금)
입학처 상담문의
ipsi.cku.ac.kr / 033.649.7000

당신의 카벙클은 무엇인가요?

카벙클(carbuncle)은 바다거북이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만드는 단단한 치아를 말합니다. 카벙클로 알을 깨고 나온 바다거북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더 강하고 단단한 카벙클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입니다.

